돌아가신 할머니에게서 사랑을 배우다

안 명 기
시인 • 수필가

오늘은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꼭두새벽부터 아빠와 엄마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제부터 49제에 올릴 음식을 모두 준비하셨던 엄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깁니다.
나는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대체수업으로 보고하고, 할머니 49제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차 뒤 트렁크를 열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실었습니다.
"예솔아! 늦겠데이. 퍼뜩 타거래이."
"알았어요, 아빠."
내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잘해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40대 중반에 할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한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오남매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여기서 훌륭하다는 것은 많이 가르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지위가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 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 좋은 직업을 갖지는 못했을망정,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겸손하며, 웃어른을 공경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식들로 키웠다는 뜻입니다.
아빠는 조그마한 야채가게를 하시고, 엄마는 옆에서 돕고 계십니다.
늘 싱싱한 야채를 공급하기 위해 새벽에 가락시장에서 직접 받아서 옵니다. 일요일에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합니다. 나와 놀아주지 않았던 아빠가 미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빠는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니 할머니 반만큼만 베푸는 사랑을 가졌어도 사회는 이리 삭막하지는 않을낀데……. 예솔아, 니는 꼭 할머니 뜻을 받들어야 한데이."
"……."
다음은 아빠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사십 년 전, 아빠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개학 전날의 얘기입니다. 연필과 공책을 사기 위해 점빵(시골가게)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이라 자질구레한 생필품은 물론, 모든 문구용품도 이곳 점빵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주막집과 투전판도 점빵 한구석에서 이루어집니다.
"봐요, 봐요. 공책 주이소."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아빠가 살던 시골에서는 '여보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봐요'라고 합니다.
당시는 주인이 점빵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들에 새참을 내간다든지 아니면 비워두고 뒤꼍 텃밭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빠는 여러 번 주인을 불렀지만 좀처럼 인기척이 없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점빵 주인이 없을 때는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서 돈을 작은 박 바가지 안에 넣고 나오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아빠는 호기심 반, 근심 반으로 주위를 살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없어도 어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점빵 안을 드나들었지만,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던 터라 가슴이 콩닥 거렸습니다.
안에는 먹을 것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건빵, 쫀드기, 눈깔사탕, 유과, 뽀빠이, 자야, 그토록 씹고 싶었던 풍선껌까지.
손에는 종이돈 3원이 들려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갈등이 왔습니다. 먹고 싶은 충동을 누르고 공책을 사야만 합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다시 한 번 주인을 불렀습니다.
"봐아요-."
역시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순간 아빠도 모르게 재빠른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손에는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 그리고 뽀빠이 한 봉지와 풍선껌이 들려 있고, 집을 향해 바람같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양심은 있었던지 1원짜리 종이돈 한 장은 점빵 안에 있던 박 바가지에 넣고 왔으니 그리 큰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착한 아이로 소문난 터라 누구 한 사람도 아빠라고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달포쯤 지난 것 같네요.
해가 뉘엿뉘엿 갈지자걸음을 하던 그날도, 방과 후에 숙제를 대충 끝내고 아이들과 소꿉을 한창 망태기씩 해서 어깨에 메고 점빵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또래 아이의 우는 소리와 젊은 여자의 혼내는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들려옵니다.
"아지매요, 다…… 다시는 안 그러겠심더. 참말임더. 믿어 주이소."
"니 이눔아야, 니 커서 뭐이 될라 그러노?"
"……."
"니 이 점빵에서 몇 번이나 훔쳐 갔노? 빨리 말하거라, 이놈의 자슥."
"참말임더, 이번이 첨임니더."
"거짓말 말거래이."
"참말임니더."
"근데 와 자꾸 없어지는 것 같노?"
"……."
"니 정말 이번이 첨이가?"
"참말입니더. 믿어주이소, 아지매요."
"그라모 내 한 번 믿어 볼거구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거래이."
"……."
"그만 가 보거래이."
"아…… 안녕히 계시이소."
상구는 아빠보다 한 학년 위인 5학년입니다. 상구도 공책 사러 왔다가 주인이 없는 줄로 알고 눈깔사탕 한 개를 집어 오다가 들킨 것입니다.
상구는 유복자입니다. 상구 엄마가 상구를 임신해서 이 동네로 이사 왔고, 상구 아버지는 그해 여름 홍수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상구 엄마는 남의 허드렛일이며, 밭일, 논일을 하며 근근이 살아갑니다. 상구는 공부는 못했지만 나쁜 짓은 안 하는 아이입니다.
주인 여자는 한 마디 툭 뱉으며 들어갑니다.
"하튼 애비 없는 자슥들은……."
아빠는 한동안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무겁게 발길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망태기를 내려놓고 쇠죽을 끓이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네요.〈계속〉